

(령감) 그리 딕은 어딴 오닛가

(정) 나는 서울스오

(령) 네에 별셔되와도 서울량반 갖흐시든겜이오

(정) 별말을 다하느구려 서울스름은 별달을것잇소

(령) 암만히도 서울스름은 표가나지오

성씨는 무슨조를 쓰십닛가

(정) 녀성은 리가라하오

(령) 어 그리시단 말슴이에요 주인과 일가가 되심니다그려

나는 전쥬리씨지오

손님도 아마 전쥬리씨 시지오

정숙은 딕답도 흘름이엿시 안으로들어가며

여보마누라 마누라가 서울스름은 별스름만녀여 좀보면々々하엿지

지금 우리스랑에 서울량반이 왔스니 나아가 구경하오

말이 막써러지며 방속에서 머리는 모시박우니 들켜쓴듯하고 아리위스니는 다

짜져 두벌이 음으러진 로파흔아가 체머리를 절々흔들고 나오며

응 서울량반이왔셔 서울량반이 엿지하야 우리집에 오섯슬짜

아마 속히는 말인게로군

(령) 압다 마누라두 나가보면알지

그로파가 참나무 집핑이를 쳐져집고 쉼불앙々々々나와셔 문틈으로 기웃이
들여다보고 혀를 해々 녀들녀며 돌오들어가더니

이이 아가 니가 팔십을 솔엇다만은 그런인물은 처음보았다 에그 잘도성
겜지

얼골은 분을싸고 너흔듯하고 눈썹은 붓으로 거려닐들 엿지 그것케 거리
겜지

이이 서울스름은 다그려하냐 너는알겜지

안스방알으목 별악다지압해 바느질코리를씨고 시름이엿시 안젧는 십팔구세
썸된 계집아히는 듯는듯마는듯 바느질만하다가 량미출산에 만첩슈운이 어
리여 바느질을 슬쩍밀어놋코 신세타령이 나온다

에그 세상에 남못당홀경계 당하기는 나갓흔년이 어데잇셔오

(로파) 하々々 이이 그말말아 우리두량쥬가 눈먼쌀지식 혼아도업셔 죽어 야 못어줄스름도업더니 흥는님덕분으로 너를 잊어온후 마음을 부치고 사난디 하々々 그게무슨 소리란 말이나

네가 공연히 서울소리를 하엿구나

(계집인) 에그 지난일을 생각하면 나에서 신물이 짝々나오구려

아버지은덕이야 머리치를비혀 신을숨은들 잊지다 갑는단말이오마는

(노) 볼々々 그런말은 하지도말아라

츠々보아가며 우리네외가 너를더리고 서울로 갈거시니 마음상하지말고 잊거라

(계) 우리즈근아씨는 이런줄은 몰으시고 네가 다라난줄만 아시겠지 또 우리아버지도 그동안 무슨디경이 되엿는지 알슈잇나 실성하고 돌아다니는 모양이 눈에 환하지

(노) 이이 별말々어라 그딴 즈근아씨는 그동안 무슨하엿겟니

그계집아씨가 이말을 듯더니 훌쩍々々우는지라 로파는 만단으로 위로를 하느라고 질질하는디 시골방은 가운데 벽만막고 위스잔은 스랑으로 쓰는데이라 이씨정숙은 비가키이기만 기다리고 안젖다가 아리스잔에서하는 전후슈작을다듯고 의심이 벅쳐나든지 주인령감을 불너안치고

(정)령감은 저녁간에 몇치나 두엇소

(령)취우 지식이잇스면 늙은놈이 이고싱을 하겟습닛가

우리 두늙은이는 죽어야 발뒤꿈치밧게 찌러갈것이 업습니다

(정)지금 짐시들어도 쌀은 잇는모양인디 업다하오

(령)허쌀지식이라도 혼아만잇스면 안쥬목스 불어워 안이하겟습니다

이놈의 팔자가 엇지그리스나운지 저녁간 낫는죽々 촌척을보고 병산의지식혼아도 기르지못하엿스나 이런놈의 신세가 또다시 잇단말삼이오

슈양딸이라고 혼아잇셔야 남의지식이니 쓸디 잇습닛가 제부모를 츠쳐가면 그만이지오

정숙이 그 양녀의 리력을무르니 령감이 입달쫓케 전후결과를 늘어놓는지

라 정숙이는 정신업시 령감의 입만 바라보고 안젓다가 엿더케 좃든지 오히
려썩인가 의심할만하더라

(정) 여보 금년이가 만일 령감이 안이더면 슈등원혼이 될번하엿소그려

(령) 인심이 죠곰이라도 잇스면 살너네지 안일스름이 어디잇단 말슴이오
만일 그씨에 낙시거루타고 건너가든스름이 안이더면 금년은 영영고기밥
이 되엿겠지오

에 씬썩도합디다 팔뚝갓흔 동아줄로 질썩々々 동헛습디다그려

비스공놈들은 저슈업다고 물에 돌오 느흐려하는것을 돈푼을 주어가며
실고오더니 한식경은 되닛가 스지를 썩지력々々하며 입으로물을 자
구토하는고로 엿더케 신통호지 금년의시신을 가루안고 인가를쳐져 들
어가서 스오일 조섭을식여 우리시골로 다리고 내려와서 슈양쌀을 솜
앗지오

(정) 참 고마온일이오

(령) 그러나 금년은 밤낮 그딴조근아씨 생각뿐이라오

제 소원풀이로 서울에 다려다주조하나 그년들의 솜시에 그딴조근아씨는
무스하엿겠소

금년이가 디금 올라가기만하면 귀신도 물으게 죽을터이지오

그딴렘감이나 오셔야 일은귀정이 될년다

정숙의 금년을 보고십흔 마음은 시각이 급하나 외단총락에 조괴본적이 탄
로되면 비편홀일이 만홀것이요 조괴 본적을 설파안이후면 싹면목 남조로
게집아히를 보조하기도 난쳐하야 밤되기만 기다리고 안져서 눈물이 나눈줄
물으게 련속하야 흘으니 리첨지는 심약흔 혀은이라 정숙의 우는것을보더니
공연이 한숨을 치쉬며 나리쉬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정숙의 울든말을하니

(로파) 그말듯고 칙은히 녀이지 안이후리가 누가잇겠소만은 그량반이 사
나희량반일망정 아마 우리와갓치 심약흔게요

밤이나 낮이나 조나세나 시름을 펼날이 업든금년이 전후 위급흔 화란을 당
하고련형으로 리첨지의 구제함을입어 목숨은 보전하엿스나 천리타향에 귀
희가 처량홀썩안이라 그동안 리첨관집 조근아씨가 엿던디경이 되엿는지도

물으고 제아비의 지식일코 상성하야 돌아다니는 모양도 눈에 암々하야 눈물로 세월을 보느더니 서울량반이 왔단 말을 듣고 마음이 켜기여 그릇든지 공연히 반가운듯도하고 심회가 저연비창하든츠에 그량반이 저괴 소경령을듯고 울드라소리에 의아가나서 이싱각 저싱각을하며 저녁밥을 먹은뒤에 령감량쥬즘들기만 기다리니 원리 리침지량쥬는 초저녁즘이 거운고로 저녁숫갈을 노호며 곳 쓰러져저는지라 금년이 감안이 사랑으로 나아가 문틈으로 되다보노디 이씨 정숙이는 홀노안져서 혼즈말로

에그 금년이 그디경 된줄이야 누가아렷나

에그 불상도하지

문틈으로 들여다보든 금년이는 이거동을보고 문을열어 붓치며 들이달아 저근아씨를 부르고 업드러지니 정숙이는 부지불각에 죽은금년을보고 병々이 안젧다가 금년을붓드리 일으키며

금년아 너와늑가 죽어서 혼이맛났니 슬아서 삶에맛났니

소리업시 울든금년이 눈물을 흘쳐々々 씻고

글세요 췌네두 물으갓습니다 아마 췌네가 죽어서 저근아씨를 뵈는게야요

저근아씨는 웨일로 더러케 되섯습닛가

무슨 변 당하실줄은 짐작하엿습니다만은

(정) 늑말이야 츠々듯지만은 그씨 너를보내고 기다리든 늑마음이 엇더히갓갓

넣니 십년감쥬는 하엿다

네가 그러케 된줄이야 삶엔들 싱각하엿갓니

도모지 늑타일다 나도 그동안 무슨디경을 안이당히갓니

하면서 싱니스별 지년일을 울며불며 말하느라고 밤이가는지 날이서는지 물으는 금년이 로쥬의 경상은 귀신도 감동홀터이나 금년의 로쥬가 움도싸도 업시 죽은줄만알고 만심환회하야 우슴으로 연락하기는 경성인왕산밧 리춤판의 후취부인이라 정숙을 죽인후에 섬월은 부인의 일등공신이되여 전후잔룩을 다쓸며 여잔저산은 괴탄업시 홀터늑니 리춤판집은 춤불안당마진집이 되엿스나 부인은 섬월이 안이면 썩 죽을줄로 아노터이러라

그집쥬인 리춤판은 귀향을풀녀 제쥬로브터 돌아온후로 판직에도 쏫이업시

사랑문을 압뒤로 척々닷아걸고 혼조안져 말도안이하며 눈쌀을 잔뜩썩흐리고 무슨 생각을 쌍々하더니 홀연 잠억으로 방바닥을 싹치며

허리가 뒹속에서 지닌는 모양이지 그만일을 희득지 못한다말인가

정숙은 결단코 그러할리업고 또 마누라가 죽었다흔들 조곰아흔 녀편네가 그런중대한일을 하지못할것이요 정숙의 쓰든세잔 그릇에 굴너닫기는 편지슈지를보면 그럿치 안타할슈도업스니 이런 괴변이 어디잇슬구

하면서 속에서 화증이나든지 옷을 주섬々々 녀여입고 정처업시 길로나서 머리를 쪽숙이고 혼참가다가 식문밖 서춤서를 만나니

(서) 어 오다 가다 맛났소그러

지금 령감을 보러가는 길입딘다

그러나 어디를 가시오

(리) 속에서 울화도나고 심화도 울적하여 소풍점 나선길이오

(서) 허 그럿치안켓소

그러면 도흔곳이 잇스니 그리로가서 소풍이나 하고 옵시다

(리) 도흔곳이 어디란말이오

(서) 나도 말만 들었스닛가 가셔보아야 알겔소

(리) 그러면 어디서 연설을 혼답딴가

(서) 그도 안이지

(리) 그러면 요리집이나 연극장에를 가자는말이오그러

(서) 그도 또안이지

(리) 그러면 물으고 갈데가 어디란말이오

그러면 계집의 집인가 보오그러

네가 본리 그런디는 단겨보지를 안이하엿는걸

(서) 썩々々 계집의집은 계집의 집이지만은 불가불 가셔볼 필요가 잇습닌다

(리) 가셔볼필요가 무엇이란말이오

(서) 엇던놈이 스부가규슈를 썩여다가 남촌 미동근처에 썩장이로 유명호전쥬집에게 팔엇는디 전쥬집은 창기조합에 명목이 잇는고로 그 규슈를미

음향라고 날마다 들복그나 그 규슈는 저스위한하고 말을듯지 안이혼다니
설마 그런디로 치의할것은 안이나 요스이 무슨변이엿겟소
게다겸하야 그규슈의 모습과 년치가 슈상하기 보고온스름을 지금 다리고
나섯소

향면서 엽에선 스름을보며

여보게 빅츨위 저어룬세 인스엿줍게

(리) 저천구가 빅츨위시오그려 우리 인스흡시다
나는 리○○라하느 스름이오

(빅) 츄벌셔 가라도 뵈을것을 길에서 인스를 엿조오니 대단히 미안하외
다

시청은 빅천괴 을시다

괴레가 안녕하십닛가

(리) 우리가 초면에 이런말을 못는것이 실례요마는 그 규슈를 로형이 보
와다니 모습은 엿더흡닛가

(빅) 시청도 잠간 보왔는고로 저세히 괴억은 못흡니다

(리) 그리도 모습은 괴억하겟소그려

(빅) 네 모습은 대강괴억흡지오

년치는 열 팔구세 가량은 되여보이논디 살빛은 빅설갓고 두썸은 흥도갓
고 이마는 도다오는 반달갓고 입살은 식로썸은 연지갓고 코는 디썸썸어
노흔듯하고 눈은 식스별갓고 키는 호리々々하나 아리위를 툭 썸어노흔듯
흔디 허리는 혼썸이 치못되고 발은 외씨갓습디다

리츨관은 빅츨위의말을듯고 의심이 땃동하야 빅츨위와 셔츨셔를다라고 전
주집을 츄저갈제 빅츨위가 곧당골 엿던골목으로 들어가더니 골목안 막다른
대문을 혼들며

이리오너라 々々々々

그안에서 썸고리 소리갓흔 소리로 니디고

어디셔 오섯나 엿쥬어 보아라

하더니 신발소리가 썸々々나며 대문틈으로 썸웃이 니여다보다가 문을 활칼

열며 숨숨이 될락 말락 혼 계집이 얼골에 회색박을 뒤집어쓰고 주리씩 치마
에금식요도로 허리를 질끈동히고 휘々둘너보며

에그누구라고 빙춤위령감이 오셨소그려

웨코가셔러졌나 못들어오고 문밖에서 쫓뱌거려

저기저랑반들은 누구신가

리춤판과 서춤서는 빙춤위를싸려 안으로 들어가니 그계집은 무슨슈나 난듯
기갈광질광 접다가 부산하엿는디

(리) 주인도 몰으는집에 흠브로 들어와 관겨치안일가

(계집) 에그 별말숨을 다하시지

제마음에는 좌석이 루츠후야 불안합니다

빙춤위는 주인계집 귀에다 입을 착붙치고 무엇이라 쑥덕々々하더니 그계집
의얼골이 식무룩 하여지며

아죽잇기는 그저잇지만은 그런 만고열녀는 초저무엇하시랴오

일전에도 령감이 말한마디를 붓치랴다 못하야 코만쉴이고 가지안이섯소

어제도 리쥬스가 왔다가 칼을가지고 덤비는통에 혼이싸져 다라났다오

(빙) 흥변구경이나 못볼것이잇나

(계) 이왕 그년을 보러오셨다니 저조것하야 보시구려 하면서 포달스런 소
리로

이이량반의 즈근아씨야 이리오너라 못나오겟디

상화실에 가서도 저런터를 부릴가

오히려여기잇는게 제게 영광인줄은 몰오고

말이 막긋치며 건은방속에서 마조 악을쓴다

나가는 어디를 나오리

당신이 돈쥬고 샅다니 니가 남의집 중의씨요

이런일저런일 저관을 가져넷가 웨 나를여기다 잔썩 가두어두고 썸썸을
못하게하오

당신은 청바지 저고리 못입을터이오

에그 밤이 낮갓흔시디에 이런 디원구통흥일이 또잇나

에그 정초시하고 리쥬스란놈 그 두놈은 언제나 급살을마져 격구러지누
말을맞치며 목을노코 우는지라 주인계집은 귀가막히던지 오도커니 섰는데
리춤판은 일장스설을 드른즉 음성은 평안도 방언이요 달은 의심은 업스나
중간에 무슨곡절이 잇슴을 짐작하고 한참안졌다가 불문곡적하고 건는방문
을열고 들어가니 십팔구세썸된 썩갓흔 계집아히가 혼조악을 쓰다가 리춤판
들어오는것을보고 썩썩놀나 벌스설며 구석으로 들어가려하는지라
리춤판이 그거동을보고 측은히녀여 허스우스며

이이 놀나지말아

나갓치 늙은사람이 설마하니 무례히굴나구 그리느나

그계집아히가 리춤판의 말을듯고 잠시보아도 점조는모양이 외모에 나타나
니 그제야 마음을노코 오히려 의지를강려하는모양이라 리춤판이 들어가서
지계문압에 안지며 일변위로도하고 일변 그 리력을 무르니 그 계집아히는
눈물이 비오듯하며 목이메인소리로 전후 경력을말하는데 리춤판은 한참듯
다가 흘연눈이 싱긋하여지며 기침을호번 격하더니

허저런년놈들 보앗슬까

그리네가 의쥬서촌 황동지의 딸이야

(금순) 정초시라고 하는놈이 당초에 제게향하여 흥취흔 마음을 두더니 아
마 저를욕심녀여 도적놈들을 들여보닛든게에요

에그 그놈의 웨슈를 엇더케하면 갑습닛가

제부모는 저를일코 상성을함며 다기다가 무슨일로 그릿는지 집에 출화사
지 당하엿다는 소문이 잇셔오

(리) 그리너는 네부모 츠지러 올나오다가 츠안에서 의쥬집년을 맛났고나
(금) 아마 의쥬집은 저를알어 보앗든게에요

그러키에 저를사랑하는체하며 풀무골 제집으로 저스위한하고 썰엇지오
저야 평성처음으로 서울을오니 천리타향에 스코무친하고 제부모는 츠질
귀한이 업는고로 그집에서 여러달을 류하다가 필경 이광경을 당하엿습니
다

(리) 그리네가 이집에를 엇더케되여셔 왔드란말이나

(금) 리치슈라 하는놈이 저를보고 강포지욕을 뵈이려하는것을 죽기한하고
방석하엿더니 그혐의로 저를여과다 팔앗디요

병신훈아 고흔디업다고 그놈이 곰비팔이에다 얼굴은 열기설기 썩어미인
놈이 잡놈의티가 니발나엿세요

제가 처지는 미천하나 절리야 귀천이 잇습닛가 그런잡놈에게 허신만 하
여노흐면 제신체는 무엇이될닛가

이집쥬인도 역시 썩장이로 유명흔 전쥬집이올시다

저다려 미음을하라니 만일 그디경만되면 저는 죽을받게 계척이업습니다

(리) 오나 걱정말어라 네설치는 자연할썩가잇지

하며 얼굴에 로식이 등々하야 쥬인계집을 불으니 쥬인계집은 리츨판이 들
어가서 금순을 욱이나 뵈이라느줄알고 정글어워하더니 리츨판과 금순의 슈
작을듯고 얼굴이 식침하야 무슨말을 줄하려다가 리츨판이 불으는소리를 듯
고 성을 썩루렁이니고 들어가며

웨 불으심닛가

(리) 이제집아히는 디금 좀시드려도 량가쳐녀인디 량가쳐녀를 함부로 유
인하야 이런짓을하면 필경무스할싸

어 그런법이 어디잇슬구

(쥬) 량가쳐녀를 유인하야 왔는지 목을미여 물어왔는지 저야 알비잇습닛가
그런말슴은 웨 저다려하심닛가

그런말슴을 하시랴거든 서소문밖 풀무골스는 의쥬집과 이오리스는 리치
슈다려 하실것이올시다

저는 오쳐량돈이나들여 스왓슨죽 누구든지 본전만주면 돌오보닛겟습니다
리츨판은 쥬인계집의 말을드른죽 스리도 썩흔 그런지라 이리싱각 저리궁리
하다가 쥬인계집을 디하야

여보게쥬인 그러면 조흔슈가잇네

(쥬) 슈요 슈가 무슨슈오닛가

(리) 법률로 말하면 량가쳐녀를 유인하야 팔고스느 스름이 죄는일반이나
이왕 저네가 오쳐량이나 쥬고 다려와다니 니가 본전을 줄것이니 니게로

보니까

추후로는 그런짓을 말냈다

(유인) 만일 그러시면 제게도 상덕이요 저아히게도 적선이를시다

저도 저아히를 스오려하야 사온게안이라 의주집과 리치슈의 썬임을듯고
다려왔더니 저아히야 단통에 저는 몇칠을 잠도 못 잤답니다

설음에 못나기여 흠흠우든 금술이 리츨판의 말을듯고 감격하기 충량업서
빅비스레를하며

에그 령감세서 죽어가는 스름을 구제하야 주시니 하히갓호신 은혜를 무엇
으로 갑습닛가

저는 령감을 우리 아버지갓치 압니다

(리) 은혜라 할것이 잇느냐

나도 너만흔 쌀조식이 혼아잇는디 너조식을 생각하니 그러치 안케스냐
(금)

(유인) 이 이야기 가 너가 너를 마워 그런것도 안이요 너를 복나라고 그런것

이안이다

나도 돈을주고 스왔다가 네가 그디경을하니 닐들화증이 안이나갓니

이후에 잘슬거든 야속다 말고 천밀하게 상종하조

리츨판령감이 너를 다려가신다니 다형하기가 이를것업다

(금)

리츨판은 유인계집과 계약하고 밭오집으로와서 이런스유를 조세히 괴초하
야 경무스게로 보내고 금술이는 곳 다려다가 그근쳐 조용흔곳에 두고 부모
를 초져유려하니 금술이는 리츨판 의양하기를 천성부모와 갓치하고 리츨
판도 그위인을 괴특이녀이나 금술을 불적마다 정숙을 생각하더라

금술의일은 서씨분인으로주가 망연히 몰으더니 하로는 섬월이 밝그로서 들어
오며 얼골이 파랗게 질녀 아모말도못하고 별스떨다가

에그마님 이것을 엿지하면 좇습닛가 마님

인제는 큰일이 낫습니다그려

(부인) 웨응 무슨큰일이 낫다말이나

이년아 말이나 좀히라

(섬) 에그 의주집과 리주스를 어제 경무청에서 항채죽쇄하여 좁어다가 별
々악형을 다하고 오늘 감옥셔로 내려가두었다는디 잠간전설을 드르즉스
부가처녀를 유인하야니인 죄라하니 이를 엇지흠닛가 마님

부인은 이말을듯더니 정신이 아득하야 얼골의 피과가업시 노리지며 엇지할
줄을 물으더니 반향후에야

이이 섬월아 의주집과 리주스가 떡설이 그일로 좁혀갔는지 엇지알슈잇너
그러면 령감은 엇지하야 이러탄말이 업스시냐

(섬) 에그 마님두 답々하말슴도 하십니다

령감이 제주셔 돌아오신후로 그등스에 무슨말슴이 게셔요 감안이뵈온즉
집안동정만 삼히시는 모양이시든겜이오

(부) 이이 섬월아 우리는 움치고 썰슈도업시 엇지하면 토흐나

그리도 알기는 우리갓흔 무죄인보다 무당이 나흐니 단골무당 좀불너오
너라

일이업슬싸 잇슬싸 못전이나 좀하야보조

섬월은 부인의말도 치떠러지기전에 황々급々히 가더니 리츨판집 단골무당
을불너왔는디 이무당의 집은 남덕문밖 도동근처라 평일에 섬월이와 무간
이지니는고로 정숙과 금년의일은 대강눈치를 치엿더니 섬월이가 황々급々
히와서 청흠을보고 리츨판집에서 누가알어 못구리나 푸닥겜이나 하랴는줄
알고와서보니 부인은 얼골이 폴으락붉으락 하야안젓고 섬월은 두눈이 뒤
박혀돌아닫기는지라 그지간 스실은 짐작하나 성시침을 썩 떼이고 안스방
으로 들어가며

요사이는 하는것업시 무엇이그리 밝분지 한번도 오지못하엿더니 누가

웨편치안이세요

에그 마님은 일어안지섯는데

그러면 령감마님이 미령하십닛가

부인은 이마에 손을연스고 무당을 기다리다가 호들갑스럽게 반석하며
아조네오나 이리드러오게

네가 아원일이나잇서 조네를 츠지니 불안하야 엇지하나

(무당) 천만의말숨을 다 하십니다그러

(부) 달녀오라고 혼것이안이라 네가 디금 걱정되는 일이잇스니 그일이 엇뎃게 될는지 못구리나 좀하야보조고 청히네

(무) 그러시지요

(부) 이이 섬월아 두쥬열고 쌀솜 퍼오너라

하면서 돈괴를열더니 세여볼식도업시 혼중억을 듨북쥐여 소반에노코 여보게 명빅히 풀어줄쥬게

무당은 돈과쌀을보더니 흥이절로나셔 된소리 안된소리 혼춤중절티더니 샴씩놀나며

에그 이게 원일일야

상문살이 엇지동하나

쫓치못흔소리가 나올가 마음이 조마々々하며 똥똥이 다타는 부인과 섬월은 춤은명을 홀디경이라 무당은 이거동을보고 풍을 벌억치며

에그 알쥬업는일이올시다

틱에 그전브러 이런일이업더니 춤이샴흔걸이오

부인은 죽어가는 소리로

웨 엇뎃길네 그리나 말이나좀 조세히듯세

(무) 에그 관세음보살

글세 말숨을 하조하나 밋지안이실터이닛가 홀쥬잇습닛가

(부) 여보게 그게 다 무슨말인가 조네불너 못전하기는 좀조세히 알조고 하는것이지

(무) 에그 제가 신령님은 령검하신 신령님을 뵈셨지오만은 말숨하다가 무안이나 안이당할가요

(부) 무안을 줄리가잇나 어서좀듯세

(섬) 에그 만신님두 우리러에 무슨괴 휘할말이 잇다말숨이오

어셔 발은티로 말숨이나 좀하시오

무당은 춤신장이 집힌것갓치 눈을싱긋々々 입을실늑々々하며 눈을 나리살

고 쌀을 이리저리 헤집으며 한참안졌다가 엽에 스름이 경풍을 향해 소리를
벌어질으고

에그 무서워라

마님과 섬월의 좌우에 녀귀들이 잇서々 별々 작회를 다함니다그려

그녀귀가 마님과 무슨 원슈가 잇는지 밤낮경영이 틈을타서 보복할심각이
올시다

마님과 섬월의숨에 그녀귀만 뵈이면 무슨 일이든지 집허노코 마가들어
안될터이지

이적섬월은 상파닥이에 진삼이 붓적々々나서 못박은듯기 안졌고 부인은 머
리털이 쭈뼛々々하며 웰몸에 소름이 썩々썩쳐 죽는스름 괴쓰듯모주름을 웃
씩々々하고 안졌다가 그중에도 발명이라

(부) 여보게 그것이 웰일인가

네가 이적까지 남의게 적악한일이 업는데

(섬) 에그 녀귀 녀귀는 웰녀귀야

필경 어디서 못어든 녀귀인게지

(무) 나도 알슈잇나만은 단정코 못어든 녀귀는 안인걸

(부) 즈네말이 올흔말일세 그전부터 우리식탁에 손각씨 녀귀들이 잇는것
을 네가 대범하야 쳐들지를 안이했더니 필경잡탈을 하나베그려

(무) 장히 어렵습니다

관지구설까지 일어나는걸이오

(부) 여보게 그러면 엇지하야야 도흔가
하라는디로 다함세

(무) 그 녀귀를 위하야 진어귀 식남이나하야 압길이나 열어주고 상문살이
나 풀어볼가요

(부) 여보게 진어귀식남을하면 무슨히되겟나

(무) 암그럿치오

(부) 정녕아모일도 업슬까

(무) 암이적정 저시름이 소멸되고 그 녀귀들도 자연물너가갓지오

(섬) 에그마님두 만신이 어련이알고 말하겠습닛가
(부) 여보게 그 두가지하즈면 얼마나가져야 되겟나
(무) 덕에서 하시는일을 녀넌히야 달나하겠습닛가
만량만주시면 아모일도 업게하여 드리겟습니다

(부) 암즈네야 썩 들만치 말하느스름이지 달은무당과갓치 상구지업게뒀
여울으느스름은안이지 돈은 지금줄것이니 리일 곳 시작하게

(무) 그런줄이나 알려주시니 슈구를하여도 괴로운줄 몰으고 하겠습니다

(섬) 그러면 어디서하누

(무) 조용하고 쫓기는 국슈당이쫓치

(부) 이일이 시급하니 리일곳 시작하게

하면서 지폐이백원을 책책세여 무당을쥬니 무당이 성식적게 밧으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기는 합니다마는 제것이나 안 써를는지 몰으겟습
니다

덕에서 하시는일을 어련이할것은 안이지만

(부) 여보게 그러하게 단골이 쫓타는것이 지

곳이나 잘하고나면 난들 그저잇겟나

두눈에 돈 동록이 잔뜩올나 허무밍랑한말을 영절스럽게썩여 부인으로쥬의 잔
장을 다독이든 무당은 돈을보고 눈이번하야 노랑면쥬슈건에 단단히 동혀
미여허리춤에 들너치고 엇기바름이 절로나서 뒤도안이 돌아보고 썩손이를
하느디 부인과 섬월은 부터안져서 대강이를 마쥬디히고 스점시를 뒤집어엮
더라

(부) 이이 섬월아 그무당이 본리 령검하지만은 엇지 그리 무섭게 아니

(섬) 그러키에 무당도 허스가 안이지오

그무당이 여잔 령검한줄 아십닛가

무엇인지 곳이나 하고나야 마음이 노히겟습니다

에그 무셔워라 그 녀귀들이 디금도 우리좌우에 직히고잇겟지

(부) 무얼 곳날싸지 바더노앗는디 그녀귀들도 싱각이 업겟지

초후로는 정숙과 금년의말이라면 감히입을 썩곳지 못하고 잇흔날 섬월은

집광막디 걸쳐집고 남산 봉화속 상々봉을 바라고 허위々々 괴여올가니
과연 굿제구를 국슈당에 차려노앗는디 모다하야 몇푼을 안이들이고 막써여
먹은 모양이나 섬월은 이여부져여부 할것업시 일만 무스히 되기를 칠년디
한에 비바라듯 구슈죄인 스 바라듯 이를 바지적々々 쓰고안져 감히 이러
니 저러니 말도못하는디 무당이 신옷을입고 장구도치며 제금도치고 징도울
니며 방울도 흔들면서 부정결이를 치른후에 너타령이 나온다 눈물을 더벅
々々 흘니며

에그々々 나들어왔소 서씨 계주와 섬월에게 비명횡스흔 리츨판의쌀 정숙
이뇨요

하고목을노코 올더니 금년의녁이 또들어와 두녀이 겹쳐서 펄々뛰며 섬월을
잡아업지르고 숨지창으로도 쿡々떨으며 칼로도찍으며

이년섬월아 네죄를 네가알녀든 업혀노코 목을비라 짓쳐노코 비를싸라 이
년섬월아 에그々々

섬월이 삼을 썰々흘니며 크가씨여지개 쌍에다 틀어박고 두손길을 한데모아

실시업시 절을하며 이길복길 하는말이

에그 스하시고 용셔홈시스

무지흔인간이 쇠술로 밥을먹으니 스름이지 기듯이나 달을것이 잇습닛가
에그 즈근아씨는 원네가 죽인것이 안이올시다

전후 홍화조사는 의주집이 하엿스니 벌역을 나리셔도의 주집에게 나립소
스

이러튼지 저러튼지 죽을씩라 그릿스니 하히갓치 스하시고 극락세계로 터
여나십소스

무당은 런동갓치 을느며 이것을 히야 용셔한다 저것을 히야 통촉한다고 병
력갓치 호령하니 섬월이는 잔이 콩입만하야 살녀달나고 두손이 발이되게발
며하라는디로 하마하더니 금년의녁이 또납뻘며 섬월을 물고쫓으며 츠고
질으니 섬월은 정신이 아조업시 빌도못하고 절도못하다가

에그 금년아 너야 왜나를항하여 이리느냐

너는 나도죽인것이 안이요 핍셔방도 죽인것이 안일다 전후죄는 장돌놈이

가지었지

무당은 그뒤로 울며불며 전후슈죄가 줄을이어나오느니

이년아 너가심시에 쓰고입고 앓기며 모흔것을 이년네가 모도치지하고 혼
아도 안가져오니 어허 꽤심흔지고

섬월은 이말을듯고 삭군늘엇어 리춤관점으로 보니여 정숙과 금년의 평일입
든 의복이며 쓰든물품을 모도갓다가 국슈당에 버려노흐니 이날 국슈당은
녕마전에 만물상전을 겸쳐버렸더라 무당은 그제야 뒤를쌍방을갓치 구르며
겨오 용서하니 섬월이 빅비스테를하고 늘치가되여 들어오니 두눈은 하감아
가되여 뒤흉슈에가붓고 허리는 싹어져 위아리 두삿이 서로다홀 디경이되엿
논디 안절부절을 못하고 이를바드득 바드득쓰고 안젓든 부인은 본리 체중
치못흔히디에 경망하게 마조니달으며

그리 벌서 다하고 나려오니

대관절 걱정이나 업겟다디

너귀들은 물너간다고하디

어서 말이나 좀하렴우나

(섬) 에그 물으겟습니다 조근아씨와 금년이 가 엿덧케 야단을 치는지오

(부) 압길싸지 열어준밧게 쓰엇지라고 그리

(섬) 에그 또하란답니다

(부) 응 또하리 일만무스히 된다면 빅번은 못하겟니

아마 저을너달나고하디

인제는 마음이 좀노힌다 위션 어제오늘 보아라 무슨일이잇나

모도 굿덕일다 돈들어 언짜는일이 어디잇나

돈이만흐면 귀신도 스피인단말이 참을치안으나

흐면서 티연무심이 걱정근심을 안이하더라

남대문밖 정거장근처에 노동자들은 버리도업서 모주흔스발도 못스먹고 길
스가 명석즈리에 늘어안져서 시세평론도하며 예전리악이도하더니 혼스름
이씩나안져서 국슈당에서하든 곳 리악이를하니

(여러놈) 허하 만쇠 즈네는 삭짐지고가서 조흔구경을 하네그려

(그스름) 허허 여보게들 요사이 돈푼이나 잇는놈의 집에서는 무당판슈안
이면 의지를 못하게 그려

압다 섬월이년의 지저복복하는 모양이야 참눈이 식은々々하야 불슈업드구
장돌놈은 엇던놈이게 무슨혐의로 금년을 죽였는지 몰으나 모도 그놈에게
로 밀데 그려

달은놈들은 이말을 우스고담으로 듯고 우슬뿐이나 그중에 유심히듯고 졸지
에 눈이불쑥 뒤집혀 압이컴々하기는 금년아비 방순보라 미쥬알고쥬알 지세
히 키여못고 우쥬々々 리춤판짐으로 들어오는길에 화풀이로 모쥬 혼스발을
스셔썩 들이키고 도로 나을여하더니 머리는 험슈룩하고 두눈에서 지검이
가 썩여々々 나오는놈 혼아이 들어와서 모쥬는 혼스발썩 스셔먹고 혼남비
나 되는비지를 조끼엽질로 무작정 퍼먹는지라 모쥬집쥬인이 눈이썰어지게
흔춤보다가 열이 별커나든지 와락달녀들어 조끼엽질을 뽕세시며

「여보이량반 고만조시오

(그놈) 여보네가 왜 그저먹소 나도 금썰악이갓흔 돈을네고 먹는데

(쥬) 이런제 모쥬는 혼스발썩먹고 남의비지는 혼남비를 다먹으라나

그놈이 비지를 정신업시 퍼먹다가 이소리를듯더니 제잡담하고 북을々々썰
는 비지남비를 번쩍들어 동당이를치며

이런올아를지고 포도청에가 낫즘을 잘놈갓흐니

이놈아 네비지를 썩먹으면 엇지히

모쥬々인은 분이 썩뒤사지을나 적숨을 버셔붓치고 그놈에게로 달녀들나 하
더니 시비판에 들어스면 경위잘찾는 금년아비는 술이얼근흔김에 그거동을
보고 리히업시 비위가들녀 그놈의팔을 잔썩붓들고

여보이천구 인스합시다

그놈이 방장 모쥬々인과 들어붓흐라고하다가 방가의 인스하자는 말을듯고
지저풀어진 눈썰을 희번덕어리며

네 조흔말습시오

(방) 뉘딧이라하오

(그놈) 네나는 장돌놈이란 스름이오

방가는 장돌놈이라는 말을 듣고 무슨 선심이 그리나든지 반석을 향해

어 그러신줄 몰랐더니 장선달이 시란 말이오

여보쥬인 이량반이 잠시 실슈는 흥섯소만은 좀 춤을밧게업소

(쥬) 춤다니요 저 경을향로 열두번식치고 염병에 버리죽을 먹을놈이 남의
비지남비까지 쉼쳐버렸스니 저놈은당장 지소막으로 잡아다가 순금나리씩
지판을향겅소

(방) 압다 그리할것이 무엇잇소 비지갑과 남비는 너가 디신물허 노흐리다
말을맞치고 쥬머니에셔돈을 부스럭々々々 쉼여쥬니 쥬인은 돈을바든바에
다시 닳을길이업셔 그놈을 버리며 들어가는지라 그놈이 방가의 흥는거동을
보고 일변 이상히도녀이며 일변 감스히도녀여 방가의 성명을 무르니

(방) 네 나는 리순보라 흥는스름이오

(장) 어 흥변도 뵈온적이 업는디 녀오 고맙게 구시니 대단히 감스호오그러

(방) 허어 춤 우리가 인제야 맛날터이안이오

딛은 나를몰나도 나는딛의 성함을 드른즉 자연알겅소

(장) 암만히도 짐작이 나지안는겅이오

(방) 두말할것업시 우리 남문밖으로가셔 술이나 흥잔더먹고 말숨흡시다

춤 반가온겅이오

방가는 제 동류의 쇼전을듯고 금년을 죽인 장돌놈을 츠지라호나 허영청에단
즈겅듯어디가 츠질곳이업셔 섬월의 량쥬나 좁아 무르라고 흥든츄에 금년
의 혼이지시호엿든지 장돌놈을 맛나니 당장 더운잔을 녀여씹고 심흐나 덕
실이 금년이 죽인 장돌놈인줄 몰으는고로 쉼염쉼염 쉼여다리고 나오니 그
놈은 방가를 감스히 아는지라 피말뒤에 망아지싸르듯 줄네줄네싸라 정거장
근쳐로 나오니 노동자들이 방가를보고 여러놈이흠썩

여보게순보 어디로가나

방가는 눈을썩썩쳐썩쳐며 노동자충충으로 들어가 무엇이라고 즈잔호더니
돌오나오며

에 술흔잔을 먹어야 할터인디 여귀는 정거장근쳐라 그러흔지 빅물이어잔
빚스야먹지

(장) 어허 고마운 말씀이지만은 념오불안한걸이오
(방) 별말씀을 다하시느구 우리터에 그싸진 술흔잔을 더접흔다고 치스할
것이 무엇잇소

우리 이오기넘어 천호술집으로 갑시다

(장) 여보리션달 우리가 어디셔 맛났소

(방) 로형이 인왕산밧 리춤판덕에잇는 핑즈근돌이와 천호되다그려

(장) 핑즈근돌은 엇지아시오

(방) 그것은 로형이몰났소 즈근돌이는 너 이성스촌간이지오

즈근돌이가 일샹 로형말씀을 흡딘다

(장) 그러시단 말이엿다 핑즈근돌과 천호다썩이오

죽을말이라도 서로 못할말이엿시 지너는터이지오

방가는 가장 정다운듯키 너털우슴을하며 별々영구력을 다부리며 돌놈의 비
알을몰슈히 썩여드른죽 위불엿는 금년을 죽인장돌놈이라 당장 그즈리에셔
칼로죽썰너 업지르고 더운피를 먹고십으나 보아하니 돌놈의 괴셀이든지썩

심이든지 방가는 열암운이 덤비여드러도 못다할썩안이라 섯불니호다가는
날니여 보닐념려도 잇는고로 분흔싱각을 살덕々々 주리춤듯하고 이오기송
림속으로 츠점々々 들어가니

(장) 리션달 여괴는 무엇하러 들어오시오

(방) 엇던친구와 예셔 맛쥬엇슨죽 다리고가야 안이호겿소

(장) 암 그러시다썩이오

돌놈이 신지무의호고 방가를싸러 점 무인디경으로 들어가니

(방) 이스름이 기다리다 못하여 돌오갓나

(장) 압다 누군지는 몰으나 그저갈리가 잇겿소 좀더 들어가 봅시다그려

호면서 도로혀 방가를 다리고 심산중으로 들어가더니 솔밭속에 슈건으로
협슈룩흔 머리를 절싹절싹 동헌로동자 스오명이 웃득웃득나셔며 아루체를
하니

(방) 즈네들 장히갑갑잇지 어셔 이리들오게

돌놈은 아모란줄 몰오고 섯는디 그로동자들이 좌우로 갈나셔며 정답고고

맡든 방가는 돌놈의 상도를 물으난결에 턱잡아손에다 휘휘친친 감아쥐고
모주살이올나 축늘어진 두법싸귀를 섯달그믐날 흰색치듯 썰썰붓치며 무지
흔발길로 한번 퍽거더치니 무심중에 당흔돌놈이 불이 엇덧케되던지 폭나가
업드러지며

에쿠에쿠에쿠에쿠

리션달이게 왜일이오 룡을넘오 파히호시는구려

방가는 눈이 산빛게베저 돌놈의 가슴을 가로타고 안져서 철되갓흔 두주목
으로 눈파코와 입파가슴을 퍽퍽안기며 어린아히 발버둥이치듯 이발길 저발
길로 퍽퍽거더치고 입으로 물어쫓으며

이놈아 정신좀차려라 니가 누군고하니 네가죽인 금년아비다

이놈아 바로말을히야망정이지 일호라도 은휘를호면 당장네비를 갈고
간을니여 씹을터이다

이놈아 당초에 니 썩임을듯고 금년을 어디서 엇덧케죽였셔 이놈아 발오
말히라

말을맞치며 품속에서 번쩍々々하는 서리갓흔 갈흔아를 쓱쓱들어 돌놈의가
슴에다 언지니 돌놈이는 그제야 방가인줄알고 별々썰며 말을 못하다가

여보시오 방션달님 솔너주시면 발오 말하리다

(방) 이놈아 죽기전에 어서말히

돌놈이가 돈뎡푼에팔니여 즈근돌이와 셔벗신의 주축을밧아 전후 저지른악
스를 일々히말하니 방가는듯고 불거진눈에 눈물이 더벅々々 찌러지며 니를
북々갈면서

이놈아 엇덧튼지 네가 죽었구나

하고 괴양이 쥐어루듯 죽을똥 살똥돌으고 남뉘며 그즈리에서 죽이라하느니
라

(로동자) 여보게순보 그럿케할것이 안일세

그리다 저경철놈이 여괴셔 뒤어지면 우리가 큰일이 날터이니 저놈을 묵
거가지고 경무청으로가세

(방)그리다가 소문이나면 또 다라날년놈이 잇슬터인죽 이놈은 의오리 순

포막에 맛기고 지금당장흥일이 또있네

돌놈을 두엇기가 뒤로맛닫게 잔뜩제치미여 복다림에 죽은기세을듯 놀흔곳
나진곳 험흔디 평탄흔디를 같이지안이하고 지르々 잡아싸으니 돌놈은 업드
러지며 걱구러지며 새을녀 이오키지서로오니 술금이 전후스실을 지세히듯
고 돌놈을 지서안에 잔뜩달아미인후에

(방) 여보시오 술금나리 이놈과 동모흔놈이 식문밖에 잇스니 여러나리중
에 한분만 가십시다

술금이 방가의말이 두려워 그런것이안이라 술인등스에 잔연인고로 방가를
싸러서병신의 집으로와서는 술금은 큰길에세우고 방가만 스랑으로 들어가
니 이적서병신은 못된잡류들을 모하노코 스기취지흥궁리와 부녀걸탈을 모
계를숨이느라고 눈살이 붉어 숙은々々하며 안젖는판이라 방가々들이가 문
안을드리니

(서) 네가누구나

(방) 소인은 인력거군이온디 피시고가든량반이 소인다려 서방님 잠잔피

시고 큰길로오라시기 들어왔습니다

(서) 그리하지 그러나 그누군가

함면서 갓두루막이를하고 방가를싸러 큰길로 나와서는 방가々 술금을보고
눈을썴적이니 술금이 왈악달녀들며

이량반 덕이 서서방이오

(서) 네 그럿소 그리로형이 나를초젼소

(술금) 그리서 네가불넛서

나와 잠잔가면 좀 무려볼일이 잇서

병신은 제가지은죄가 잇는고로 가슴이 울넛々々야 별々떨며 앙달을 할라
함거늘 술금이 눈을썴 것어붓치고 흠척하더니 포승을넛야 포박을바드라
쌍방을갓치을느니 병신이 부득이 술금을싸라 이오키지서로 와서본즉 천
만숫밖에 장돌놈이가 지서들스보에 달녀 늘어젖는지라 병신이얼골이 노리
지며 들고튀려하더니 방가々보기쫓게 병신을 툇거더초 업지르니 술금이 병
신을 포박하야 경무형으로 넘기려하거늘

(방) 또 잡을년놈이 잇스니 이놈들은 아주 소문나지 말고 여기두시오
하면서 급히 인왕산밧 리춤판집으로오니 이씨 리춤판은 정숙을 생각고 풀
이 업시우득흔이 안젧다가 방가를보고 온연교를 무른디

(방) 알웁기황송하오나 종용이 엇줄말습이 잇습니다

리춤판은 근본 눈치가 빠른스름이라 방가의 거동을보고 슈상히녀여 마루
뒗으로 나와안지니

(방) 소인이 오늘이야 저근아씨와 금년의일을 알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알월슈가업습니다

리춤판은 이소리를듯고 반갑기도하며 놀납기도하여 가슴이 덜적나려안져
말을 능히못하니 반가운것은 주々야々에 정숙의 종적을몰나 철석간장이 구
비々々 씌어지다가 저세흔 소식이나 드를가흠이오 놀납기는 죽엇는가 혹시
죽지안넛드리도 못된길로 들어갓는가 흠이라 혼춤만에야

그리셔 엇덧게 알엇느냐

방가々 굿구경할말이며 장돌놈을 잡아문초바든일을 저세히고하코

그러하오나 저근돌이년놈이 다라나기 쉬우니 각별신축을하셔야합니다 쇼
인은 그놈들을다리고 경무청으로 가겟습니다

리춤판이 전후슈말을듯고 얼골이 당장 저지빰이되고 정신이 앓질하더니 두
눈이 별안간에 쌔々하야 보이는것이 업는지라 괴를 부드득쓰더니 방가는
스랑근처에 숨기여두고 집안하인을 모도불으니 남녀무론하고 스랑뜰에가득
히 모히거늘 저근돌이와 섬월을 잔뜰결박하야 섬돌아리살니고 리춤판은 두
눈이찌어지게 브름쓰고 니를북々갈며 벽력갓흔 호롱으로

네이놈 네죄를 네가몰을가 당장발오알외야하지 만일 일분이라도 괴망하
면 네년놈은 디미에 처죽일터이다

이씨 저근돌의 년놈이 벌서짐작하코 죽을줄아나 확실이 그일이 탄로된줄몰
나 발명을흔다

소인이 장하에 죽사와도 령감마남세 지은죄가 업습니다

(섬) 에그하느님맘시스 쉼네가 무슨죄오닛가

리춤판이 방가를볼너 증거를디히며

네이년 네년놈이 저근아씨와 금년을 엇뎡게 죽엿서 이년

방가는 저근돌과 섬월을보고 곳점々이작가 죽이고십은마음이 굴룩갓흐나
량반의압헤서 제마음뒤로 흘슈도업고 들저는 공스를 밧기도전에 막우흘슈
업고 설덕々々 춤고셔々 곱지안은두눈이 싱긋하더니 저근돌의 발명함을보
고 드리다라 년놈을 이발길 저발길로 인정이 반푼엇치업서 제기초듯 흠브
로덕々것어추며

이놈아 발오알외라 못알외겟니 이놈아

이씩저근돌과 섬월이는 니마도써여지며 코도를크러져 연지갓흔 북은피가
팔々홀으니 집안스름과 동리스름들이 본리 년놈의 섯락신을 미워하든고
로상관업시도 고소하야서 수군々々하며 년놈의 전후단처를 들쭉어 슈죄를
하며

저놈과 저년이 마남세력만밧고 집안에서 곤디짓을하더니 그여히 싯을염
을엇군

에그 불샅도하시지 저근아씨는 저년저놈의손에 비명횡스를하섯군

에그 불샅도하시지 저런근변이 어디또잇나

저근돌은 감안이 싱각을하여도 일이이왕 탈로난바에 발은뒤로 고하지안이
하면 무지흔미만 더당홀지라 그제야 이실직고를하다

쇼인이 과연 죽을씩라 계집년의 말을듯고 죽을죄를 지엇스니 밧비죽여죽
시오

그러하오나 저근아씨는 쇼인이 죽인것은 안이올시다

방가가 다시 섬월의 머리치를 손에휘々감아쥐고 키짜려죽듯 막짓바슈며
발오알외라고하니 섬월이갓흔 안치고 다라진년도 미를견디지못하야 처음
으로브터 나종싸지 혼아를 거루지안코 키々복초하며

에그 이것은 마님이 다 주장하신일이니 현네는 살녀줍시오

하며 제 가슴을 쿵광々々치며우니 섬월의 이우름은 설어우는것도 안이요
무서워우는것도 안이요 미를견디지못하야 우는것도안이요 제 량슈가 진작
들고뒤지못하엿다가 팔경이디경 당음을 절통하야 우는것이라 리춤관이 섬
월의 공스를 다듯고 방바닥을 고리가 빠지도록치며 대성통곡을 니노흐니

방가도 역시 금년을 생각하고 훌훌늑기며 올라가 지근돌과 섬월을 혼디 못거
노코 츠며치고 치며츠니 에쿠스 이구스 소리는 좌우포도청에서 싹장박는 소
리갓더라 리츨판이 눈물을 싹싹싹더니 벼루에 목을득스갈어 전후스실을 다
괴룩하야 경무스게로 보니엿더라 두어시간이 못되여 형스슌금들이 스갓
흔 청스놈들을 다리코와서 지근돌과 섬월을 독수리가 벼알이 츠듯 풍우갓치
몰아가고 서씨부인은 츄임판의 부인이라하야 아죽 좁아가지안이흐니 이씨
서씨부인은 전후악스가 발각됨을알고 놀나서 괴석하야 업드러졌다가 곳식
문밖으로 도망흔지라 리츨판은 니를보두득스스갈며 목을돛코우니 이날리
츄관짐은 뒤죽박죽이되여 츄담흔괴운과 슬픈빛이 집안에 들니엿더라 스오일
후에 여러죄인을 경무청에서 감옥서로 넘기니 금년아비방가는 술을얼근히
취하고 경무청압에서 죄인들을보고 팔뚝을썸니며 무지막지하게 날치더니
그엽에 비러먹으로 다니는 늑은령감과 노파가 순목을 마조잡고 지나다가
형갈스름의 말을듯고 노파가 령감을 썩질으며
여보령감 형갈에서하느말 좀드러보오

(령감) 글세

(노) 좀 무러보오

비렁빙이령감은 그리도 그전괴습이 남앗든지 곤두기침을 올니며 눈이붉어
날치는 방가의 소미를 잔썩붓들고

어험 여보이량반 말슴좀 무러봅시다

방가는 골스김에 소미를 핵썩리치며

말은무슨말이야 소미는 웨 잔썩붓드나

(령) 어허 오늘 무슨죄인을 좁앗길네 저리썩썩하오

(방) 비렁빙이가 진작가서 밥이나 엿어먹지 그것은 알아무엇히

(령) 압다그량반 비렁빙이는 그런것을 좀드르면 엿엇단말이오

(방) 남은 화중이나서 죽겟는디 그것은 웨 지궁스럽게 무러에츄

괴혀히 드러야 적성이 풀니갓지

다른스름이 안이라 인왕산밧 리츨판뒤 지근아씨 죽인년놈을 오날감옥서로
넘기느라고 저리썩드나오

인제는 드렸으니 어서 가오
령감은 평등이만 부엌케 맛고 무엇이라 좀 탄하려하더니 로파가 령감을싸을
고가며

암그런치 그년들이 종리 무슨 할가

에그 그즈근아씨가 어디로 가셨누

우리도 그즈근아씨 성품에 이디경은 되엿지만

에그 생각할슈록 상쾌하구려

에그 그즈근아씨가 아시면 좀 도와하실나구

그딕 령감이 귀향을풀녀 오신게지

우리는 그즈근아씨가 서울로 오신줄 알앗더니 이석까지 못오신게지

(령) 압다 그런말 저런말하야 쓸데잇나

방가는 령감을 편잔주어보니고 막돌아스려 하다가 그 량주의 하는말을듯고

밧후들어서며

여보령감 무엇이라고 하소

(령) 아니오 우리씨리 말하엿소

(방) 디금드른죽 즈근아씨라하니 엇던즈근아씨 말이오

(령) 압다그량반 앓가 니가말씀 무를쳐은 편잔을 성과락갓치 주더니 남은

밥비러먹으러 가는스름을 웨이리붓들고 못소

(방) 허々々

여보니가 편잔을 줄리가잇소

좀드러 봅시다그려

(로) 압다 말씀하시구려

(령) 우리집에 그런즈근아씨 혼분이와서 계섯든 것이기에 말이오

하며서 전후슈말을 즈세히 말하니

(방) 디금은 즈근아씨 가신곳을 물으겟소그려

(령) 알슈가잇소 우리마누라도 그놈들에게 좁혀갓다가 잔신이 탈신하야

나왔스나 집에충화까지 당하교 우리두량주는 흑잔 즈근아씨가 서울로 올

나오셨나하교 비러먹으며 올라온터이오

(방) 허 그러신줄 누가알었나

의주서촌 황동지시란 말이야

나와갓치 갑시다 나는 그덕하인 방숭보이오

(로파) 그러면 금년아버지로군 저근아씨께 저세히 드렸지요

이씨방가는 저근아씨솔앗단말에 금년의 생각도 흘름업시 령감량쥬를 다리고 불이나케 리춤관점으로오니 리춤관은 죠석밥도 먹지안코 눈이 툭툭이부어 안젖는지라 문안도흘식업시 급흔소리로

쇼인이 오늘 회소식을 드렸습니다

저근아씨께서 솔어게시되요

(리) 예기놈 죽지안단말이 될말이나

죽여다 파묻든놈이 분명이 잇는걸

오늘 신체까지 초지러 보닛였다

(방) 안이을시다 쇼인이 괴망으로 알월가망이 잇습닛가

저근아씨 구하여넌 스름이 대문밖에 잇습니다

(리) 정말이나 암만하여도 밋부지간 안이하구나 그러면 그스름 쥬블너라 방가々 황동지량쥬를 불으니 리춤관은 여취여광하야 돌오혀 정숙이 죽엇단말 드렸슬씨보다 더흔지라 황동지량쥬를 사랑마루에 올려안치고 물으니 황동지량쥬가 서울저상가에 들어와보기는 처음이라 심분조심하야 썸흐리고 안져 전후일을 일々히고하니 리춤관이 정신업시 듯다가 눈물을 죽々흘니며 그리니쌀은 저네니외안이다면 움도업시 죽을번히네그려

(로파) 텃헝으로 돌아가시지는 안이섯습니다만 어디로 피신하신지 물으니 답々하와요

말이 썸썸러지며 안문이 벌억열니더니 금술이 뛰어나와 황동지량쥬를 얼쓰안시고 몸부림을 하며우니 황동지량쥬는 웨영문인지를 물으고 어리둥절하여 안젖다가

(령) 네가 누구냐 네가스름이나 귀신이나

(로) 금술아.....

하며 다시는 아모말도 못하니

(금순)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성시오 삶이오

아버지 어머니가 저러케 되실줄 누가알았스며 또여기 오실줄 삶에나 성
각을 하였겠쇼

(령)

(로) 에그

황동지량주가 그제야 금순을안시고 곡지통을 넘어노니 리춤관은 그경상을
보고 덩다려눈물이 나올라말라 흘즘에 문밖에서 인력거소리가 쉴쉴나더
니 방가々 뛰여들어오며

조근아씨가 금년을 다리고 오십니다

(리) 무엇

정숙이 금년을다리고 들어와 리춤관을 드립더붓들고 소리업시 우는데 리춤
관은 삶인지 성시인지 정신이 현황하야 멀건이 안졌다가

정숙아 네가 슬어서 육신이 왔느냐 죽어서 혼백이 왔느냐 정숙아

암만성각하여도 진가를 알슈업구

금년은 방가를 붓들고우니 이날 리춤관집은 방이나 마루나 마당이나 모다
성리스별하야 그리고그리는 부모를 깃々붓들고 우는빛이라 정숙이 황동지
량주를 디하야 울며불며 활명지은을 일것고 훌훌누기니 리춤관은 그제야
정숙의 전후력스를 무러듯고 입이썩벌어지며 정숙의등을 툄々々치더니

암그러면그런치 니즈식이 범연홀샤

지난일이야 말하야 무엇하느냐만은

니가 제쥬덕소에서 돌아와 드른죽 너는 부지거쳐라하니

이몸쓸것아 그씨 니마음이 엇더히겠느냐

정초시놈은 벌써잡아다가 감옥서에 가두었다

그놈이 금순이만 유인홀줄 알았지 너까지 음히홀줄이야 누가삶엔들 성각
하였겠느냐

정숙은 그식그리든정리를한업시 퍼는데 황동지니외는 부모와갓치 디접하고
신안쥬리첨지니외도 다리고올나와서 디성으로 디우하며 서씨부인도 정숙의효
성으로 다려오니 서씨부인은 기과를 말나하여도 조션홀부인이 뵈받게업더라

克齊鄭雲復著

學部
檢定

日語大成

洋裝全一冊定價壹圓
半洋裝全三冊八十五錢

此書는學部에서高等學校日語科教科書로檢定인바獨習에
가장簡要하고解讀기便易한良書이오니語學에有意한
君子는速速購覽하시옵

京城北部布屏下三十七統六戶

發行處 廣學書舖
發賣所 京鄉各書舖

명치샤심샤년오월십 일인쇄
명치샤심샤년오월십칠일 발행

정가금삼십전



저술자 정중부리동 제

발행자 김상만

인쇄자 최성우

발행소 광학서포

인쇄소 신문관인쇄소

발행소 광학서포

동경향각서포

경성중부포병하삼십칠통육호

경성남부상리동삼십이통사호

경성중부포병하삼십칠통육호

경성남부상리동삼십이통사호

경성중부포병하삼십칠통육호

廣學書舖書籍刊行目錄

間架結構

(初等習字)
幼學字聚

隔蒙千字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學部檢定)

初等修身教科書

初等衛生學教科書

改訂新撰理化學

日語大成

洋裝

半洋製

論語集註

孟子集註

中庸集註

大學集註

孝經大義

(學部認可) 新訂中等萬國新地志

初等自解日語文典

國文獨習日語自通

日韓尺牘

韓日書簡初程

普通教科體操提要

英法露土諸國哥利未亞戰史

普魯士國厚福斗益大王七年戰史

全一冊 十五錢

全一冊 三十錢

全四冊 五十錢

全一冊 三十錢

全一冊 十五錢

全一冊 三十錢

全一冊 一圓

全一冊 八十五錢

全一冊 一圓

全一冊 二十五錢

全一冊 二十五錢

全一冊 二十五錢

全二冊 一圓

全一冊 五十錢

全一冊 二十五錢

全一冊 二十錢

全一冊 十五錢

全一冊 二十錢

全一冊 五十錢

全一冊 三十錢

彼得大帝

書國金書養鶴新論

算術續集

言文

地球概論

增修無冤錄大全

註釋現行新法令

民刑訴訟法註解

商業經營法

列國外(國文)

新訂國文(一幅)

接本新法

(初等國文) 大韓歷史

(初等國文) 大韓地志

(初等國文) 家庭雜誌

(新小說) 自由鍾

愛國夫人傳

警世錄

(新小說) 血與淚

(新小說) 故鄉花

全一冊 二十錢

全一冊 三十五錢

全一冊 十錢

全一冊 四十錢

全一冊 十錢

全一冊 七十五錢

全一冊 二十五錢

全一冊 一圓

全一冊 四十錢

全一冊 二錢五厘

全一冊 一錢五厘

全一冊 三十錢

全一冊 二十五錢

全一冊 十五錢

全一冊 七十五錢

全一冊 十五錢

全一冊 十五錢

全一冊 十五錢

全一冊 二十錢

全一冊 二十五錢

發行所

京城中部市屏下三十七號大石

廣學書舖

金相

廣